

# 국악으로 만나는 인문학 '당신이 답이다'

전남도립국악단, 10월 8일까지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17일 김용택 시인 첫 강연...김제동·김상욱·심용환 참여

지역민들에게 국악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이 국악을 매개로 한 인문학 토크 콘서트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이 마련한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2 '당신이 답이다''가 오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20년 첫 선을 보인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프로젝트는 국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언어와 문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펼치는 토크 콘서트다.

올해 시즌 2 '당신이 답이다'란 주제로 돌아온 이번 공연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강사들이 무대에 오른다.

시인 김용택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제동, 물리학자 김상욱, 역사학자 심용환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찾아 저마다의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먼저 첫 무대인 17일 '심정강 시인'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인 김용택이 '누구나 외판섭이다 : 위안'이란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김용택 시인은 외로움에 대한 건강한 통찰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이어 24일에는 유명 방송인 김제동이 '사람이 사람에게'란 주제로 인간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 그만의



시인 김용택



방송인 김제동

유쾌한 시각으로 강연을 펼친다.

세번째 강연(10월 1일)에는 TV프로그램 '알쓸신잡'과 '아짜다 어른' 등 방송에서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이 '골디락스 :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간격'을 주제로 지구온난화 위기에 맞닥뜨린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10월 8일 강연은 TV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과 '역사저널 그날' 등 다양한 방송에서 출연 중인 역사학자 심용환이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들의 기억'이란 주제로 여순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역사 이야기를 다룬다.



물리학자 김상욱



역사학자 심용환

아울러 전남도립국악단이 선보이고 있는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 국악' 시즌 2는 오는 10월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에서 시즌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기획했다. 류 감독은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당신이 답이다'는 전남도립국악단이 매주 선보이고 있는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국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하다"면서, "대숲을 거쳐 온 맑은 바람 같은 음악들과 이 시대의 빛나는 지성 4인이 전하는 감동을 함께 조우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2 '당신이 답이다' 예매는 전화 또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전석 1만원. 전남도민과 65세 이상 노인,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등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1-981-6923. /김민석 기자 mskim@



순천 연경갤러리에서 16일까지 개최되는 '동근 거울'전.

## 시·사진으로 엮보는 순천의 사찰문화

'동근거울'전, 16일까지 순천 연경갤러리

순천은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가 있다. 두 사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산사로 순천불교문화의 위치와 깊이를 더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고승이 수행하고 강학하며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온 불교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천사찰문화를 엮볼 수 있는 시화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순천 연경갤러리(순천시 중앙2길 11-19)에서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동근거울'전은 석연경 시인과 김의길 등의 시와 사진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순천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심미적인 시와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석연경 시인의 '순천사찰'을 주제로 한 강연과 두진스님 노래 및 시낭송 공연이 펼쳐졌다.

석연경 시인은 "이번 시화전은 순천불교문화의 인문학적 사색을 통해 관객들의 삶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GB작가스튜디오탐방' 박인선 작가 만난다

인터뷰·대표작 소개 등 광주비엔날레재단 유튜브 공개

광주비엔날레가 진행하는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박인선 작가를 만난다.

재단은 박인선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에서 최근 공개했다.

영상은 서양화를 전공한 박인선 작가가 사진을 직접 찍고 그것을 재조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이유, 작업 소로 집과 자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대표작품 소개로 구성됐다.

박 작가는 재개발로 외갓집이 철거되는 과정을 목격한 뒤 기억이 담긴 집이 사라지는 것과 그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가 만든 획일화된 도시 풍경에 대한 단상을 '새로운 탄생', '뿌리' 시리즈 등에 담았다.

최근에는 자연과 도시가 유기체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둘을 잇고, 형태가 없는 물이라는 소재에 대한 관심을 '응집, 그리고 이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30주년 기념전 '두 번째 봄',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등에 참여했으며 제22회 광주미술상 대상(2016)을 공동 수상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작가스튜디오탐방의 프로그램 목



'물의 흐름 (세 개의 파도)'

적인 작가 연구에 대한 담론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 박인선 작가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윤익 비평가와 매칭했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거꾸로 읽는 철학이야기' 강좌

강성률 교수, 12월 17일까지

일상과 접목한 철학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강성률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조선대 평생교육원 2학기 강좌 '거꾸로 읽는 철학이야기'를 강의한다. 오는 12월 17일까지(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조선대 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특히 이번 강의는 소크라테스, 니체, 플라톤,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등 철학사에 이름을 남긴 역대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첫 강의는 "너 자신을 알라"가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를 주제로 문을 연다. 이어 "악법도 법이다" 반대 뜻은, "스피노자는 낙관론자였을까?", "석여가는 시인의 처리-동석", "색안경을 쓴 사람의 눈-소피스트", "금욕주의자와 쾌락주의-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도전적이고 무엄한 철학-마키아벨리, 홉스" 등이 펼쳐진다.

한편 강 교수는 전남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철학도서를 펴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조선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료 15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



## 모든 것은 흐르는 물처럼 언젠가는 사라진다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 '물 위의 집' 펴내

"물 위에 집을 짓는 일처럼 사는 일이 아득하여도 유배지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던 정암선사의 저려우허비 앞에 서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진다"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물 위의 집' (불교문예)를 펴냈다.

시집 제목이 눈길을 끈다. 모든 시집의 제목은 전체 주제는 물론 시인의 사유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시인이 상징하는 '물 위의 집'은 오늘의 많은 이들이 처한 아프고 쓸쓸한 상황을 환기한다. 살아가는 일이 어찌하면 물 위의 집 한 칸 짓는 일일지 모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가 막 떠난 무기력한 날/ 물이 불어난 산계곡에 들어섭니다./ 저 건너편 아늑한 자리를 탐하다/ 물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물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저기서 돌을 가져와 돌담을 쌓아 물길을 돌립니다./ 물 위의 집에 쉽게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오늘 하루만 살아보고 집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물의 나라 베네치아라 명명하며/ 늘 그렇듯이 허왕된 완성을 꿈꿉니다..."

표제시 '물 위의 집'은 비가 갠 어느 날 산에 들었다가 불어난 물 때문에 건너지 못한 화자가 상상속에 지은 집이다. 세찬 빗줄기와 바



람, 불어난 물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고통, 역경이다. 특특하지 못한 정주할 수 없는 집이지만 물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화자의 심상은 삶은 유배와 같다는 깊은 사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더더욱 집착을 하는 모든 것은 흐르는 물처럼 언젠가는 가뭇없이 사라진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황정산 시인은 해설에서 "임미리 시인은 자연과 세속 사이, 풍진과 강호 사이에 그 집을 지었다"며 "세 속의 삶 속에서 자연을 꿈꾸다 다시 자연 속에서 세속의 삶을 돌아본다"고 평한다.

한편 임미리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열린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물고기자리', '엄마의 재봉틀' 등이 있으며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 1522-9341